



이현정 소장의 이제는 다문화 시대 이주여성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현정
한국다문화센터연구소장
겸 레인보우 합창단장

한국사회에서 눈에 띄게 변화상을 만들어주는 것 중 하나가 한국인남성과 아시아계 외국여성간의 국제결혼이다. 2000년이 넘어서면서 현격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국제결혼이 많은 사회문제를 안고 있고 문제점이 표면화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안게 되었다. 국제결혼은 2002년 이후 매년 만 건씩 증가하고 있고 2004년 이후에는 전체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능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수가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입국한다는 것이다.

혹자는 동화주의니 뭐니 해서 우리나라의 관습과 생활상, 풍습에만 주안점을 두고 한국적인 것만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초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언어나 풍습, 생활상에 익숙해져야 본인이 생활하기 쉬운 법이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가야 옳지 처음부터 동화주의는 안된다고 하면 이들이 어디를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탁상공론식의 이론적 담론은 지양했으면 한다.

우선 어떤 한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쓰는 언어를 반드시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본인이 살아가기 불편하지 않는 법이다.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을 알아야 살아가기 편리한 것이고, 그 나라의 여러 가지 풍습을 익혀야 편리한 법이다. 이것은 누가 어디를 가든 당연한 기초적인 살아가는 방법이다. 정말 초기단계라면, 결혼하기 전의 교육이 필요하다. 국제결혼이라는 의미와 살아가는 방법이 일반결혼과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에 대해 알 것이 많고 서로의 국가나 문화, 언어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서 있어야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의 자격이 된다. 이러한 사전교육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결혼만 하고는 가정불화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언어, 생활해 나가는 방법 등을 익혀야 한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남편과 가족들 간의 대화가 끊어지고, 오히려 오해가 빚어지면서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례는 너무나 많다. 언어문제와 함께 한국문화체험 등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려는 의지를, 이러한 문화체험 교육으로 도와줘야 한다. 문제는 각계각층에서 이러한 행사들을 저마다 많이 하는 바람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더구나 일회성 체험으로 그치는 경우가 별 효과를 주지 못한다. 어쨌든 이러한 것을 거친 결혼생활의 중급단계가 되면 이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이 취업 즉 사회생활이다. 다문화강사, 이중언어강사, 세계문화교육강사나 통번역, 어린이지도사, 방문교사 등의 교육을 하고 싶어한다. 문제는 이러한 취업을 위한 터전이 전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나라에서 인증 받지 못한 수료증을 받고 끝내버리거나 교육을 신청한 인원과 교육을 출석률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이함과 노력부족이 크다. 열심히 끝까지 다닌 결혼이주여성이라도 막상 교육이 끝나면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아 받게 되는 실망도 크다. 취업을 하더라도 시간제나 고작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 안정적이지는 못한 실정이다.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언어발달이 또래 아이들보다 늦어짐에 엄마들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게 된다. 이를 위한 사회적인 도움과 많은 아이들이 서로 모여서 놀면서 지낼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하다. 이주여성 자신이 한국어가 어눌하다는 위축감에 놀라서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언어발달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해줄 능력이 부족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엄마들은 거의 매니저역할을 하다가시피 하고 있고 교육열 또한 너무나 높아서 아시아권의 이주여성들이 너무나 버거워한다. 한국어를 모른 채 입국한 10대 아이들이 중도입국자녀의 경우는 그 정도가 가장 심하다. 또한 이주여성들만의 자조모임이 활성화해서 건설적인 모임이 되도록 지원해주고 협조해주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인 학부모들과의 자연스런 만남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일들을 해줄 수 있는 중간매체는 정부를 비롯한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노력해야 할 일이다.

천진영 기자의 문화산책 장-미셀 오토니엘의 My Way 展

슬픔 드러내 보인 프랑스 현대미술가

삼성 미술관 플라토는 11월 27일까지 프랑스의 대표적인 현대미술가 장-미셀 오토니엘의 회고전 My Way를 개최하고 있다. 프랑스의 저명한 현대미술가 장-미셀 오토니엘은 개인적 삶의 아픔과 슬픔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전시된 작품으로는 '소원을 비는 벽' '상처-목걸이' '눈물' '행복의 일기' 등이 설치됐다. 그는 인간이 겪는 아픔과 슬픔을 예술가적인 기민한 시각으로 작품을 통해 형상화했다. 전시는 서울 플라토에서 전시가 끝나면 도쿄 하라 현대미술관, 뉴욕 브루클린 미술관으로 이어진다.



2002년작 '눈물들'

작가는 이번 전시의 메시지를 상실과 소멸, 슬픔에의 애도라고 말했다. 불교는 상실과 소멸에서 오는 슬픔은 본인의 욕심에서 오는 과오로 여긴다. <사타니파타>에서는 "불행은 집착에서 나오고, 행복은 집착을 버리는데서 나온다"고 했다.

데다가 소원을 끝까지 말할 새도 없이 성냥은 순식간에 타버렸기 때문이다. '소원을 비는 벽'이라 이름 붙였을 뿐인데 이 거대한 벽은 정말 소원을 이루어 줄 것만 같았다. 베를린에는 베를린 장벽이, 예루살렘에는 통곡의 벽이 있다. 이 벽들은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래서 작가가 이 작품을 1995년 처음 베를린에서 선보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작가는 자신의 슬픔을 형상화하고 타인 앞에 상처를 드러냄으로써 집착을 버리는 것을 시도했다.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내려놓으니 슬픔이 슬픔으로 그치지 않고 예술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작품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또한, 작품을 보는 이로 하여금 격한 슬픔의 감정보다는 편안한

또 다른 아픔을 표현한 '눈물'은 60여 유리병이 눈물로 가득 차 있고 그 위에는 색색의 물체들이 떠있다. 이게 정말 눈물일까? 아니다. 작가가 물을 채워 놓고 '눈물'이라 이름 붙였다. 60개의 병에 물이 채워져 있으니 눈물은 아니고 '눈물'인 셈이다.

1995년 베를린에서 처음 전시됐던 '소원을 비는 벽'은 유황, 인, 왁스 등의 재료를 활용한 작가의 실험적 설치작품이다. 작품은 인이 칠해진 대규모 벽면으로 철거 가능한 설치물이다. 관객들은 나눠주는 성냥개비로 직접 벽에 그어 성냥에 불을 붙일 기회를 갖게 된다.

2002년 선보인 이 작품은 물이 가득 채워진 유리병 60개로 이뤄져있다. 커다란 유리구슬 마개와 병들의 독특한 형태는 멕시코 전통 유리 공예를 모방한 것이다. 각각의 병 안에는 갈고리, 하트, 별, 목걸이 등 2000여 개의 다양한 모형들이 떠 있다. 눈물을 연상시키는 물 위에 떠 있는 화려한 색채의 오브제들을 통해 규모가 큰 대형 작품과는 또 다른 슬픔을 전달한다.

작가는 관객들과 벽을 통해 교감하고 관객들의 참여로 표면에 남겨지는 흔적은 '상처'라고 말한다. 관객이 남긴 흔적은 하나의 드로잉으로 또 다른 작품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참여하는 설치 미술을 통해 작가는 관객과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작가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젊은 나이에 경험하면서 예술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고 회고한다. 그의 예민한 감수성에 난 상처가 오늘날 창의적인 작품으로 탄생했다고 말한다.

기지도 성냥개비 하나를 받았다. 인이 칠해진 거대한 붉은 벽에 성냥을 굽었더니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 어릴 때 보던 육각형의 성냥상자가 떠오른다. 아주 거대한 성냥갑을 마주 하고 있는 기분이 다. 벽 아래에는 검게 탄 성냥개비들이 이미 수북이 쌓여있다. 성냥 하나로는 너무 아쉬웠다. 성냥에 불은 예술 작품을 탄생 시킨 것이라.

불교는 인간사에서 느끼는 슬픔에 대해 동정하거나 위로하지 않는다. 슬픔은 욕망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흔히들 오늘의 아픔과 슬픔이 더욱 성숙한 내일을 만든다고 말한다. 오늘보다 내일이 성숙할 수 있는 이유는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세상 일이라는 것을 체득하기 때문일 것이다. 장-미셀 오토니엘도 죽을 만큼 슬프던 어제의 마음을 내려놓고 슬픔을 드러내 스스로를 치유하고 오늘의 예술 작품을 탄생 시킨 것이라.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

모두 잠든 밤, 공을 나오다

태자의 출가를 돕다
제석천왕이 다시 부처님의 인생에 개입하게 된 것은 출가를 결심한 후이다. 부처님은 태자 시절에 여러 차례 출가를 결심하지만 번번히 아버지의 간곡한 만류와 엄청난 감시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나이 서른이 다 되어가자 부처님은 더 이상 출가를 미룰 수 없음을 알고 뜻을 강하게 세운다. 이때 여러 천신들은 합동으로 성안의 모든 권속들이 혼란한 잠에 취하게 만들어 부처님이 몰래 공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다. 부처님이 출가하던 날 밤, 궁에서 잠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부처님과 부처님이 성안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마부 한 명뿐이었다. 부처님은 오래도록 자신을 모셔온 마부 천나와 함께 공을 빠져나온다.

벌어진다. 트로이군의 총대장 헥토르는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의 장남이었다. 그는 무적의 힘을 지닌 아킬레우스와의 일전에서 무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시신을 수레에 매달아 트로이 성 주위를 세 바퀴나 끌고 다닌 뒤 만신창이가 된 시체를 들춰내 버린다. 이에 신들은 무지개의 여신 이리스를 사자로 보내 프리아모스에게 헥토르의 시신을 찾아가서 장례를 치러주도록 한다.

깊은 밤, 헥토르의 프리아모스는 마부 한 사람만 데리고 아킬레우스의 진영으로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간다. 프리아모스가 아킬레우스를 만나러 갔을 때 그리스의 병사들은 모두 잠이 들어 그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프리아모스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킬레우스를 만날 수 있었고 헥토르의 시신을 트로이 성 안으로 찾아올 수 있었다.

색계(色界)의 신이 사냥꾼으로 변신하다
제석천왕이 정식으로 등장하는 것은 태자가 머리를 깎을 때이다. 부처님은 스스



출가 삽화=김영수

로 수염과 머리를 깎고 일체의 번뇌를 끊겠다는 원을 세운다. 이때 제석천왕은 부처님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수습한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신은 정거천이다. 정거천은 아라한의 전 단계인 아나함, 즉 생을 마친 후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불환과(不還果)를 증득한 성인들이 태어나는 곳이다. 말하자면 정거천은 온갖 쾌락이 존재하는 욕계(欲界)를 다스리는 도리천의 주인 제석천왕보다 훨씬 고상하고 도가 높은 신이다.

은 모두 다섯 개의 하늘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공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신이 다스리는 무열천, 괴롭힘이 없는 신이 다스리는 무열천, 선정이 잘 이루어지는 신이 다스리는 선현천, 관찰이 잘 이루어지는 신이 다스리는 선견천, 궁극의 미세물질로 이루어진 신이 다스리는 색구경천 등 다섯 개의 천이다. 이런 높은 경지에 있는 신들이 인간 세상에 개입을 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더러 의미가 크다.

부처님 앞에 나타난 정거천의 변신은 매우 파격적이었다. 그는 색계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냥꾼으로 모습을 바꾼 뒤 가사를 몸에 걸치고 등장한다. 이에 태자의 신분으로 입고 나온 옷들이 수렁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던 부처님이 그를 발견하고는 기뻐하며 말을 건다. 옷차림도 전락이라는 말은 아마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닐까 싶다.



조민기 작가 · 칼럼니스트

이재복 지음(280면) 정가 12,000원
* 누구든지 그림을 보고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폐결핵,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쫓겨나서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 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빛 살림 정골요법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어깨통증, 오십견, 협착증, 좌골신경통, 목 뻣뻣, 수족냉증, 갑상선, 안면마비, 흰다리, 암, 교통사고 후유증, 우울증, 불면증, 당뇨, 아토피, 부정맥, 류마치스, 협심증, 두통, 심근경색증, 생리통, 발기부전, 전립선, 체온저하증, 골병으로 인한 통증, 적취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팍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 요법. 자궁근종, 암수술전·후, 항암치료 마치고신분들에게 너무나너무 중요한 책. 강력하고 놀라운 디톡스로 몸속을 대청소한다.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썩~ 뽑아내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 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배설을 빼는 폐장 운동법, 울룩, 자궁근종, 위장병, 변비, 냉증의 원흉인 배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적취(냉적)를 쉽게 푸는법 수록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 등 각종 통증을 시달리게 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 수록!

NAVER 정골본가 검색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도서구입안내
빛살림 요법 강좌세트(2권). 책값 20,000원을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 농협계좌 : 농협 : 751017-52-024285 김순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책신청 : 054)637-9810

· 원광대학교(이영숙) 서울 성수동1가 14-35(우영동4) 4층 · 2010-서울성동 0204호 · 207-01-43500